

『慕堂日記』를 중심으로 본 孫處訥의 교육활동

정재훈*

■ 차례 ■

1. 머리말
2. 생애와 사승관계
3. 교육의 형태
4. 교육의 내용
5. 맺음말

【국문초록】

孫處訥은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초반에 걸쳐서 대구 지역에서 활동하였던 대표적인 학자였다. 그는 趙光祖와 金宏弼로부터 내려온 학문적 영향을 받으며, 李滉의 학문을 鄭述를 통해 전해 받았다. 그래서 『小學』이나 『心經』, 『近思錄』 등과 같은 교재를 講學에서 가장 중시하였다. 일기에서 가장 시간을 많이 들여 읽은 책들이 위의 교재였던 것에서 손처눌의 학문적 지향을 알 수 있다.

임진왜란이라는 일찍이 겪어보지 못했던 전란을 경험한 이후 손처눌은 새로운 사회 재건의 목표를 교육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임진왜란 이전부터 이미 조선을 혁신하려고 시도하였던 사림들의 학문적 지향을 계승하면서도 이를 지역의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었다. 그러한

* 경북대학교 사학과 교수

노력의 결과 대구 지역에서는 이전과는 달리 많은 과거 합격자를 배출할 수도 있었고, 학문의 전통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주제어

손처눌, 이황, 정구, 모당일기, 소학, 심경, 근사록.

1. 머리말

慕堂 孫處訥(1553~1634)은 명종~인조 연간에 대구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한 대표적인 학자이다. 그는 당대의 정치 현실에 실망하고 정계로의 진출을 포기한 이래 한 평생 부모님의 무덤가에 시묘살이를 하면서 효를 몸소 실천하였다. 그런 한편으로 求道의 일념으로 한 평생 학문에만 전념함으로써 당대에 이미 명망이 높았다.

그러나 비단 손처눌은 일평생 학문에만 몰두한 것만이 아니었다. 임진왜란과 정묘호란의 국가적 위기를 맞았을 때는 일신의 평안함을 뒤로 하고 과감히 서책을 덮고 의병을 일으킴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된 인물이다. 이 때문에 손처눌 이후 대구지역에서는 그에게 영향을 받은 인물들이 적지 않게 등장하였다. 그의 교육활동의 결과 講學에 참여하였던 인물들은 202명을 헤아리게 되었다.¹⁾

그의 스승은 退溪 李滉의 제자였던 溪東 全慶昌(1532~1585)과 寒岡 鄭述(1543~1620)이다. 손처눌은 그 문하에 출입하여 성리학적 학풍을

1) 『(국역)영모당통강제자록(永慕堂通講弟子錄)』 2001, 靑湖書院 간행 참조.

계승하였으며, 퇴계를 사숙하여 퇴계학의 전수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 결과 정구는 손처눌의 학문과 사람됨에 대해 모당을 한번 보고 그의 용모와 말의 기운 [辭氣] 이 크게 남다른 것을 보고 매우 중시하기도 하였다.²⁾

또한 湖叟 鄭世雅(1535~1612)는 당시 약관의 나이에 지나지 않는 모당을 가리켜 “영남의 인재가 어찌 제한이 있겠나만, 뒷날에 우리 유림의 영수가 될 사람은 반드시 이 사람로구나.”³⁾라고 했다. 전경창 역시 “학문은 오묘함을 추구하니 깊기가 바다와 같고, 말은 정미한 데 이르렀으니 세밀하기가 실과 같도나”⁴⁾라고 평가하였다.

비슷한 연배였던 郭再謙(1547~1615)은 “매번 손처눌과 더불어 서로 마주함에 자연스럽게 알지 못하는 사이에 존경하는 마음이 일어난다”⁵⁾고 하였고, 徐思遠(1550~1615)은 함께 『易學啓蒙』을 강독하고서는, “周易이 이미 우리나라 [東國] 에 왔도다”⁶⁾라고 하여 그의 학문에 감탄하여 당시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모았음을 짐작하게 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손처눌의 학문과 그의 위상을 고려하여 16세기 후반~17세기 전반의 시기에 지역에서의 사족의 역할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이 점과 이 시기의 시대적 특성과 사족의 향촌사회에서의 역할이라는 두 가지 점을 염두에 두고 설명하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16세기 후반은 사족들이 향촌사회에서 일정하게 자리를 잡으면서 향촌

2) 『慕堂集』 권6, 「年譜」 辛未

3) 앞의 책, 같은 곳, 壬申

4) 앞의 책, 같은 곳, 丁丑

5) 앞의 책, 같은 곳, 戊寅

6) 앞의 책, 같은 곳, 乙巳

의 주도세력으로 성장하던 때이다. 이 시기 사족들은 정치, 경제, 사회적 여러 측면에서 향촌에서의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손처눌의 대구지역에서의 활동은 이러한 사족활동 가운데 특히 사족들이 어떻게 강학을 통해 지역에서 자기 정체성을 확보해 나갔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사례이다. 따라서 손처눌의 강학 활동을 통해서 이 시기 사족들의 교육활동, 이를 통한 사족들의 ‘자기 만들기’에 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2. 생애와 사승관계

손처눌의 가계를 살펴보면 그의 鼻祖는 신라인 荀癡이며, 고려에서 손씨 성을 하사받았다. 공민왕대에 11대조 洪亮은 좌리공신을 지냈으며, 5대조가 집현전 한림이었던 肇瑞는 단종에 대한 절의로써 이조참판에 추증되기도 하였다. 고조인 荀茂는 음직으로 주부를 역임하였고, 증조인 世經은 효행으로 천거되어 참봉으로 제수되었다. 조부인 致雲도 효행으로 천거되어 永同과 比安 두 고을의 현감을 역임하였다. 특히 처음 효행으로 寢郎(능 참봉)에 제수되었을 때 당시 권신인 김안로의 전횡을 비판하다가 파직된 사실로 미루어 효행과 더불어 불의에 항거하는 강직한 성격의 소유자였음을 알 수 있다.

손처눌의 조상은 대대로 안동의 一直縣에서 살다가 7대조인 孫寬이 밀양으로 이주하였다가 증조부인 世경이 다시 대구의 壽城縣으로 이주하였다. 손세경이 달성 사람인 徐震元의女婿였기에 처향을 따라 이주한 것으로

로 추정된다. 손처눌의 부친은 宣務郎을 지낸 遂이고, 모친은 한산 이씨 李坦의 딸로서 이색의 후손이다. 이탄은 旅軒 張顯光(1554~1637)의 5대조인 張俁의 外後孫이므로 손처눌은 장현광과도 인척 사이이다. 손처눌의 아우와 종숙도 모두 임란과 호란에 의병을 일으켜 우국충정의 정신을 볼 수 있다. 고모부인 湖叟 鄭世雅(1535~1612)의 경우에 영천에 거주하였으며 당시 명망이 있는 학자였다. 손처눌은 자주 영천에 들러 고모부에게 수학할 하기도 하였다.

손처눌은 명종 8년(1553) 6월 25일에 대구부 수성리의 집에서 태어났다.⁷⁾ 9세에 처음 『小學』을 읽었고, 13세에는 『大學』을 읽었는데, 잘 기억하여 수 천언을 외었다고 한다. 14세에 溪東 全慶昌(1532~1585)의 문하에 나가 두각을 나타냈고, 18세 때는 팔공사 파계사에 들어가 전경창을 모시고 독서를 하기도 하였다.

17세 때에 遁村 李集의 후손 李遠慶의 딸인 광주 이씨와 혼인을 하였다. 이원경은 石潭 李潤雨(1569~1634)의 종조부이다. 이런 인연으로 이윤우는 어려서 손처눌에게 배웠으며 뒤에는 정구의 문인이 되었다. 손처눌의 후처는 창녕 조씨로서 曹應義의 딸이다.

19세 때에는 장인인 松巖 李遠慶의 장례에 나갔다가 평생의 스승인 정구와 대면하게 되었다. 이때 정구는 “독서는 많이 하는 것을 바라기보다는 정밀하고 익숙하기를 바라야 한다. 익숙하지 못한다면 그 의리를 얻을 수 없고 정밀하지 못하면 그 이치를 살필 수 없다.”고 조언하였다. 이후 정구와는 직접 수학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정구가 관직에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정구를 본격적으로 만난 것은

7) 생애에 관해 특별하게 주를 붙이지 않은 내용은 『慕堂集』 권6 「年譜」에 근거하였다.

손처놀이 50세 되던 1602년이다.

손처놀은 21세에 鄉解(향시)에 합격하나 禮闈(文科 覆試)에는 불합격하였다. 이를 계기로 하여 당시의 정치, 사회의 현실을 비판하고 과거를 포기하였다. 손처놀은 33세 되던 해에 스승인 전경창의 부고를 접하고, 이어 35세에 부인 이씨의 상을 겪음으로써 개인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되었다. 이후 40세에 임진왜란이 발발, 동생과 함께 창의할 뜻을 천명하고 의병을 일으켰다. 정유재란 때에는 부모님의 상을 마치고 45세에 당시 관찰사에게 軍務 7조를 올리기도 하였다.

이후 임진왜란이 끝난 후에는 다시 학자로 돌아와 47세부터 학문에 정진하였다. 48세에는 난중에 親喪을 당하여 상례를 다하지 못함을 평생의 한으로 여겨 黃靑洞(지금의 수성구 황금동) 묘소 아래에 집을 짓고 편액을 '永慕堂'이라 하여 평생 시묘살이를 하며 부모에게 못 다한 효를 행하는 동시에 이곳을 중심으로 제자들과 강학 활동을 통해 후학을 양성하였다. 모당이라는 그의 호는 여기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강 정구와의 사제의 인연이 다시 이어졌다. 정구는 1602년, 손처놀이 50세 되던 때 정월에 충주목사로 부임하였다가 휴가를 내서 고향으로 잠시 와 있었는데, 손처놀은 당시 旅軒 張顯光과 樂齋 徐思遠 등과 함께 星州의 寒岡精舍로 가서 만났던 것이다. 다시 정구와 만난 것은 1604년으로 東岡 金宇顥에게 조문한 뒤였다. 1605년 이후로 손처놀은 서사원, 장현광 등과 함께 강회를 자주 여는데, 여기에 정구가 참여하였고, 이후 정구가 蘆谷, 泗水洞으로 옮기면서 더욱 가까운 관계를 이어가게 되었다.

손처놀은 59세 때 정인홍이 차자를 올려 회재, 퇴계의 문묘 배향을

저지하자, 병중에서 분을 이기지 못하여 扶正斥邪文을 지어 도내 사림들에게 발송, 힘을 규합하여 결국 정여창, 조광조, 이언적, 이황 등 오현의 문묘종사에 공을 세웠다. 이때 손처눌은 광재검에게, “회재와 퇴계는 우리 유학에 학덕이 출중한 스승인데 이제 심히 무고를 당하니 이는 참으로 우리 선비들이 말해야 할 처지인데 그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논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다만 근신하는 것으로써 경계를 삼아 앉아서 보기만 하여 말이 없는 즉 맹자가 말한 ‘삶을 버리고 의를 취한다’는 것은 과연 어디에 있겠는가?” 라고 하였다.

68세가 되던 해 한강 정구가 사망했는데 이때 자신도 병중에 있어서 스승의 임종을 지켜보지 못한 것을 한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70세 때에 한강의 위패를 만들어 研經書院의 퇴계 사당에 배향하고, 퇴계에게 고하는 글과 한강의 봉안문을 짓기도 하였다. 원래 손처눌이 봉안문을 장현광에게 청했지만 사양하였기에 직접 지었던 것이다.

이후 72세 때 이괄의 난이 일어나 손처눌은 고을 사람들의 추대에 의해 의병장이 되었다. 그러나 이괄이 항복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제자들을 서울로 보내 임금을 위로하는 상소를 올리기도 하였다. 75세 때에는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의병장에 추대되었다. 77세 때 임진년과 계사년의 난에 적진에서 어린 누이를 잃고 30년간 생사를 모르다가 천민에게 시집가서 살고 있다는 말을 듣고 직접 찾아가 전택을 모두 팔아 그 자녀까지 속환하고 함께 살았다.

손처눌은 82세에 졸하므로 황청동 선영에 장사를 지냈다. 그리고 숙종 20년(1694)에 청호서원에 위패가 봉안되었다.

이와 같이 살펴볼 때 손처눌에게 스승에 해당하는 이는 전경창과 정

구가 주목이 된다. 20세 때에 배운 林下 鄭師哲(1530~1593)이나 고모부인 정세아의 경우도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 그러나 대체로 초년에는 전경창으로부터, 그리고 만년에는 정구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⁸⁾ 정세아는 퇴계 이황의 문인이며, 정구 역시 이황으로부터 배웠기에 손처눌은 크게 보아서 퇴계의 학문을 계승하였다고 보아도 좋다.

정구로부터 영향을 크게 받은 점은 그의 학문적인 붕우를 살펴보아도 드러난다. 손처눌의 대표적인 학문적 붕우로는 장현광, 서사원과 郭再謙(1547~1615), 趙靖(1555~1636) 등이 있다. 이들은 대체로 장현광을 제외하면 거의 정구의 문인들로서 정구의 영향이 가장 컸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서사원의 경우 한강의 제자이면서도 김우옹, 정구의 학맥을 계승하면서 남명에 기운 점은 다른 점이라고 하겠다.⁹⁾

3. 교육의 형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손처눌의 생애에서 중요한 점은 교육활동이다. 임진왜란이 끝난 뒤 그의 나이 48세에 영모당을 낙성한 후 이곳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강학활동을 시작하여 일생을 마칠 때까지 약 35년간 후학을 양성한 것은 손처눌의 일생에서 가장 힘쓴 영역이다.

그는 제자가 상당히 많았는데, 『永慕堂通講諸子錄』에 실린 제자는 모두

8) 김형수, 2006 「17세기초 대구사림의 형성과 분화 - 손처눌의 『모당일기(慕堂日記)』를 중심으로」 『역사교육논집』 36, 295쪽 참조.

9) 김형수, 2006 위논문 참조.

202명이었다.¹⁰⁾ 이들의 거주지를 살펴보면 대구 75명, 영천 14명, 칠곡 8명, 경산 5명, 청도 4명, 하양 3명, 현풍 3명, 고령 2명, 경주 2명, 인동 1명, 의성 1명, 안동 1명 등이고 미상이 83명이다. 대구, 영천, 경산, 칠곡 등 대구 주변의 지역이 다수를 차지하지만 소수의 제자들은 의성과 안동에서도 찾아 올 정도로 경북 일원에 그의 학문적 명성이 높았던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그의 제자 가운데 과거 합격자수는 모두 35명으로 적지 않았다. 이 가운데는 문과 합격자도 16명이었고, 무과 합격자도 2명이 포함되었다.

손처눌의 문하에서 많은 사람들이 강학을 하게 되면서 더욱 유명해지니 자연스럽게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도 적지 않게 되었다. 李光靖(1768~1849)은 『모당집』의 서문에서 “모당이 나이가 많고 덕이 높아서 가르치는 데에 특별한 방법이 있으니 그 소문을 듣고 책보따리를 지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다.”¹¹⁾라고 하여 그의 영향력을 증언하고 있다.

손처눌이 교육을 한 것에 대해 李羲發(1768~1849)이 쓴 「行狀」에도 잘 드러나 있다.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여러 생도들과 때로는 研經書院이나 仙查齋에 모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墳庵과 動鶴庵에 모여서 경전의 뜻을 강론하였다. 學습 20개 조항을 만들어서 좌우에 걸어두었다. 매일 아침 모당이 의관을 반드시 정제하고 강당에 나아가면 여러 생도들도 들어와서 절을 하고, 생도들 사이에서도 서로 읊하는 예를 행하였다. 이후 程子の ‘四勿箴’과 주자의 ‘敬齋

10) 『(국역)영모당통강제자록(永慕堂通講諸子錄)』, 2001, 靑湖書院 간행 참조.

11) 『慕堂集』 「序」(李光靖), “其年高德邵, 教養有方, 則聞風負笈之士, 踵相尋也.”

箴'을 강하고 나서 물러났다. 초저녁에도 이같이 하였다.¹²⁾

손처닐 자신도 강학의 필요성을 잘 알고 이를 실천하고자 하였다. 1596년부터 1602년까지 7년 동안 향교의 文學官을 역임하며 학문을 일으키는 데에 기여하였다. 또 1602년 문학관과 아울러 武學官을 겸직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자, 당시 관찰사 이시발에게 아래의 글을 올렸다.

제가 듣건데, 『대학』에서 말하기를, “사물에는 근본과 끝이 있고 일에는 마침과 시작이 있으니, 먼저 하고 뒤에 할 바를 알면 도에 가까우리라.” 하였으니, 위대하도다! 그 말이여. 지극하도다! 그 말이여. 이 설을 알고 이 뜻을 행하면 치국과 평천하에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런즉 오늘날 이른바 근본과 시작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실로 狂妄하여 잘 모르나, 어리석은 소견으로는 학교를 일으키는 일이 근본이며 시작의 第一義라 생각합니다. 진실로 학교를 일으켜 안으로 닦는 근본으로 삼지 않으면, 이것은 이른바 가르치지 않은 백성이 되니, 이런 백성이 어찌 능히 윗사람을 친애하고 어른을 위해 죽는 의리를 알아 밖으로 적을 물리치는 도리를 다할 수 있겠습니까? 문교를 숭상하는 마음은 하루도 잊어서는 안 되며 무예를 익히는 의리는 하루도 느슨해서는 안 되니, 그렇게 하고서야 오늘날의 급무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¹³⁾

학교를 통해 백성들을 강학하고, 그래서 백성들을 깨우쳐 의리를 알게 함으로써 사회의 기강을 세우고, 나아가 국가를 지키는 역량을 키울 수 있다는 내용이였다. 교육의 가치와 효용을 강조한 것으로서

12) 『慕堂集』 권7, 「行狀」(李羲發)

13) 『慕堂集』 권4, 「與李巡相時發書」(李時發)

사족으로서 敎化의 입장에서 향교 교육에 임하고 있음을 잘 드러낸 글이다.

손처눌은 이외에도 여러 통로를 통해 강학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손처눌은 서사원이 작고한 뒤에 강학의 장소를 황청동으로 옮기면서, 지역의 선비들에게 <通讀回文>을 보내는데, 여기에서,

선비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늘에게 부여받은 것이 중차대하다. 그러나 태어나면서 훌륭한 자질을 가진 자가 아니면 진실로 세속에서 스스로 빠져 나오기가 어렵고, 그러저럭 구차하게 시간만 보내면서 세월과 함께 나이가 들어 끝내는 시들어버리는 자가 많다. 그러므로 반드시 師友의 지도와 경계가 있는 후에야 성취함이 있게 된다. 한 강당에 합석하여 경전의 뜻을 강론하여 밝히는 것 또한 어찌 서로 면려하고 점차 연마하는 일단이 되지 않겠는가?¹⁴⁾

라고 하여서 모여서 공부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렇게 모여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은 당시 사람들이 향교 만이 아니라 서원을 세워서 새로운 강학을 시도하려는 분위기와 연관이 된다. 향교에서의 교육은 대체로 기초적인 성리학의 교육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그에 비해 16세기에 들어 사람들은 자신을 위한 학문, 즉 爲己之學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이는 성리학 본연의 학문적 입장으로 돌아가서 문체의 근원을 자신에게서 찾기 시작한 것이었다.

『모당일기』에도 “丹’을 포함한 것은, 붙어지는 것이 필연적인 이치이다. 두 사람이 유독 거처하면서도 점차로 薰陶하여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

14) 『(국역)영모당통강제자록(永慕堂通講弟子錄)』 「通讀回文」

은 무엇 때문인가? 사람이 물건보다 못한 것이니 애석하구나!”¹⁵⁾라고 하여 함께 공부하더라도 서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비판하기도 하였다. 이는 자신의 공부를 확실하게 하고 나아가 주변에 있는 봉우들까지 변화시키는 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었다.

이렇게 모여서 강학한 곳으로는 仙查齋나 研經書院이 대표적이다. 『영모당통강제자록』에는 강학하는 모습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매월 초하루에 혹 연경서원에 모이기도 하고 혹 선사재에 모이기도 한다. 성현의 잠계를 강당 벽에 걸고 북쪽 벽 아래에 스승의 자리를 마련한다. 慕堂이 樂齋와 나란히 앉으면 생도들은 앞으로 나와 배례를 행하고, 이어서 삼면으로 나누어 서서 서로 향하여 읊례를 행하고 자리를 정하고 앉는다. 有司가 큰 소리로 <白鹿洞規>와 <學校規範>을 한번 읽는다. 直月이 생도들의 선악을 적은 장부를 바치면 선자는 장려하고 악자는 경계하고 가르친다. 그 후에 생도들은 각기 읽은 책으로 進講하는데, 반드시 단정하게 손을 맞잡고 곧게 앉을 것이며, 서로 돌아보며 이야기할 수 없다. 성현의 글과 史學이 아니면 강을 허락하지 않는다. 혹 연고가 있어 참석하지 못하게 되면 사유를 써서 유사에게 보고하여 스승이 알게 한다.¹⁶⁾

선사재는 개인의 서재가 아니고, 연경서원처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교육기관에 가까웠다. 특히 서사원이 많은 이용하였는데, 선사재가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이후 이를 증건한 사람이 서사원이었기 때문이다. 선사재에서의 강학에는 손쳐늘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1601년

15) 『慕堂日記』上, 89쪽, “丹之所藏者, 赤必然之理也. 兩人獨同處, 而不能漸染薰陶者何也. 人不如物, 惜哉.”

16) 『(국역)영모당통강제자록(永慕堂通講弟子錄)』「乙巳規約」

부터 1614년 4월까지 선사재에서 강학한 날이 확인되는데, 예를 들어 1605년 3월에 7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정구를 모시고 강학하였다. 또 1613년 8월에 대구부사가 참석한 가운데 강학을 하기도 하였는데, 여기에 손처눌은 제자인 鄭好仁과 金善慶을 대동하고 참석하기도 하였다. 대구부사는 손처눌보다 늦게 도착하여 강학하는 모습을 종일토록 지켜보기도 하였다.¹⁷⁾

그런데 위의 기록을 보면 강학을 하는 데는 강학의 규정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초기의 강학규정은 손처눌이 혼자 만든 것은 아니고 서사원과 함께 강학을 하며 그의 영향도 적지 않게 받았다.

공이 항상 教化가 밝지 못함이 곧 講學이 정미롭게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탄하면서 강학을 진작시킬 방법을 생각하였다. 을사년(1605) 겨울에 고을의 벗과 講學會의 규약을 의논하였는데, 그 가운데 節目과 課程은 모두 寒岡 鄭先生에게 여쭙었다. 강론한 책은 『朱子書』, 『退溪集』, 『心經』, 『近思錄』, 『小學』 등이었고 經傳 같은 경우는 자원하는 사람에 따라 일과를 정하고 조약을 엄하게 하여 가르쳤다. 공이 제자들을 인도하고 가르쳐 성취시키고자 하는 아름다운 뜻이 지극했으나, 결말을 이루지 못했으니, 식견 있는 자들이 지금까지 그것을 애통해하며 한탄하고 있다.¹⁸⁾

손처눌이 서서원에 관해 적은 위의 기록을 살펴보면 서사원과 긴밀하게 의논하며 스승인 정구의 의견까지 구하여 강학의 규정을 마련한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서사원은 <仙查精舍學規>를 지었는데, 이것은 율곡 이이의 <隱屏精舍學規>와 유사하였으며, 손처눌도 여기에서 영향을 받아

17) 『慕堂日記』 上, 487쪽

18) 『慕堂集』 권5, 『樂齋徐公行錄』

<을사규약>을 만들기도 하였다.¹⁹⁾

이러한 강학의 규정을 만들게 되었던 것은 손처놀이 1600년 2월에 서사원, 광재점 등과 함께 향교에 모여 <學校模範>을 강학한 것이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지하다시피 <학교모범>은李珥(1536~1584)가 지어서 당시 국왕인 宣祖에게 올린 글이다. 이이가 경연에서 선비의 풍습이 가법고 구차하며, 스승의 도리도 끊어진 것에 대해 은급하자, 선조가 이에 대한 규범을 事目으로 지어올리라고 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서사원의 문집인 『낙재집』에는 <학교모범>·<선사정사학규>·<精舍約束>·<示精舍學徒>가 실려 있다. 이 가운데 <학교모범>과 <시정사학도>는 이이가 지은 『을곡전서』의 <학교모범>·<시정사학도>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고, <선사정사학규>·<정사약속> 역시 <은병정사학규>와 <은병정사약속>에서 정사 이름만 바꾼 것이다.

<仙查精舍學規>의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²⁰⁾

19) 이에 관해서는 이미 선행 연구에서 지적이 있었다. 宋熹準, 2003 「慕堂 孫處訥의 講學活動에 대한 연구」 『慕堂 孫處訥先生의 生涯와 學問』(靑湖書院 간행) 94-95쪽 참조.

20) 『樂齋集』 권6, 「雜著」 <仙查精舍學規> “一. 入齋之規. 勿論士庶庶類. 但有志於學者. 皆可許入. 齋中先入者. 兪議以爲可入. 然後乃許入. 若前日悖戾之人. 願入則使之先自改過修飭. 熟觀所爲. 決知改行. 然後許入. (公糧之用依研經)
 一. 推鄉中年長有學行德義者一人爲山長. 又擇一人爲有司. 又輪選一人爲直月. 山長有司. 非有故則不遞. 直月則一月相遞. 凡齋中論議. 山長主之. 凡百必稟而定之. (山長有故在他處則其時參會寂長者主之) 凡齋中之物出納. 及供僧齋直使喚及什物有無. 有司掌之. (非有司則不得擅自使喚檢罰之事) 凡物皆有籍. 遞時按籍交付于代者. 凡山長朋友所講論之說. 皆直月掌其記錄. 以爲後考之資.
 一. 書不得出. 色不得入. 酒不得釀. 刑不得用. 書出易失. 色入易汚. 釀非學舍事. 刑

- 선사재에 입학할 수 있는 규칙은, 士族과 庶類를 막론하고 학문에 뜻이 있는 사람은 모두 입학할 수 있다. 먼저 입학한 사람들이 의논하여 허락한 후에 들어올 수 있다. 만약 그 전에 悖戾했던 사람이 입학하기를 원하면, 먼저 그 사람에게 스스로 잘못을 고치고 수양하게 만든 다음 그 사실을 잘 관찰하여 행동을 고친 것을 안 다음에 입학을 허락한다.

非儒冠宜。有司論罰下人者非。

- 一。凡入齋者必以冠服從事。勿用燕服笠子。
 一。每日五更起寢。整疊寢具。少者持帚掃室中。使齋直掃庭。皆盥櫛正衣冠讀書。
 一。山長在講堂。則就前行拜禮。只於座上。俯答其禮。分立東西。相向行揖禮。凡讀書時。必端拱危坐。專心致志。務窮義趣。毋得相顧談話。
 一。凡几案書冊筆硯之具。皆整置其所。毋或亂置不整。
 一。凡食時長幼齒坐。於飲食不得揀擇。常以食無求飽爲心。
 一。凡居處必以便好之地。推讓長者。毋或自擇其便。年十歲以長者出入時。少者必起。
 一。凡步履必安詳。徐行後長。秩然有序。毋或亂步不整。
 一。凡言語必信重。非文學禮法則不言。以夫子不語恠力亂神爲法。且以范氏七戒。存心寓目。七戒書于壁。
 一。非聖賢之書性理之說。則不讀于齋中。史學則許讀。
 一。常時恒整衣服冠帶。拱手危坐。如對尊丈。毋得以褻服自便。且不得以着華美近奢之服。
 一。食後或遊泳于鳶魚亭欄柯亭上。亦皆觀物窮理。相咨講義理。毋得遊戲雜談。
 一。朋友務相和敬。相規以失。相責以善。毋得挾貴挾賢挾富挾父兄挾多聞見。以驕于儕輩。且不得譏侮儕輩以相戲謔。
 一。作字必謹正。毋得亂書。且不書于壁上窗戶。
 一。常以九容持身。毋得跛倚失儀。喧笑失言。終始不懈。
 一。昏後明燈讀書。夜久乃寢。
 一。自晨起至夜寢。一日之間。必有所事。心不暫怠。或讀書。或靜坐存心。或講論義理。或講業請益。無非學問之事。有違於此。卽非學者。
 一。有時歸家。切宜勿忘齋中之習。事親接人持身處事存心。務循天理。務去人欲。如或入齋修飭。出齋放倒。則是二心也。不可容接。
 一。直月掌記善惡之籍。審察諸生居齋處家所爲之事。如有言行合理者及違學規者皆記之。月朔呈于山長。善者獎勸之。惡者鐫誨之。終不受教則黜齋。
 一。諸生雖非聚會之時。每月須一會于精舍。月朔必會。朔日有故則退定不出三四日。有司先期出回文周告。講論義理。改定直月。

- 고을 사람 중에 나이가 많고 학행과 덕의를 갖춘 한 분을 추대하여 山長으로 삼는다. 또 한 사람을 뽑아 有司로 삼고, 또 돌아가면서 한 사람을 뽑아서 直月로 삼는다. 산장과 유사는 뚜렷한 이유가 없는 교체하지 않고, 직월은 한 달마다 교체한다. 선사재의 모든 의논은 산장이 주관하고, 모든 일은 반드시 산장에게 물어서 정한다.
- 산장이 강당에 들어오면 제생들은 앞으로 나아가 배례를 하고, 이에 산장은 자리에서 답례한다. 그리고 제생들은 동서로 나누어 선 뒤 서로 향하여 읊을 한다. 무릇 책을 읽을 때는 반드시 단정하게 팔짱을 끼고 정좌하며, 마음과 뜻을 다하여 글의 뜻을 힘써 궁리해야 하며, 서로 돌아보면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 식후에 흑 鳶魚臺와 爛柯臺에 노닐되, 모두 사물을 보고 궁리하여 서로 의리를 묻고 강구하여야 하며, 유희하며 잡담해서는 안 된다.
- 직월은 선악을 기록하는 문서를 관장하는데, 제생들이 서재 또는 집에서 하는 행위를 상세히 관찰하여 언행이 이치에 합당한 것이나 또는 학규를 위반한 것 같은 모든 것을 기록한다.
기록한 것을 매달 초하루에 산장에게 드리면, 산장이 선한 사람은 장려하고 악한 사람은 꾸지람을 하며, 가르쳐도 수용하지 않으면 내쫓는다.
- 성현의 글이나 성리의 설이 아니면 재실에서 읽지 못한다. 역사책의 경우는 허락한다.
- 여러 생도들은 비록 정기적으로 모이는 때가 아니라 하더라도 한 달에 한번은 정사에 모인다. 대체로 매월 초하루에 모이는데, 초하루 날 이유가 있으면 늦추어 정하되 3~4일을 지나지 않게 한다.

모여서는 의리를 강론하고 직월을 바꾸어 뽑는다.

이러한 학규는 사람들이 향촌의 현장에서 교육의 강학활동을 통해 어떻게 변화를 이끌려고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이의 학규를 그대로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시 사족들이 그만큼 공동의 문제의식과 해결방법에 동의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士族과 庶人을 막론하고 학문에 뜻이 있는 사람에게 모두 문호를 개방한 점은, 조선 초에 향교의 교육이 양인 모두에게 개방된 것과 동일하며, 정형화된 향교 교육을 넘어서 私學에서 이를 감당하게 됨을 보여준다.

또한 산장이 강학 활동과 선악의 활동에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산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산장에는 당시 향촌에서 가장 존경받았던 사족들이 추천되었을 것임은 역시 충분히 예상가능한 일이다.

선사제에서의 강학만이 아니라 연경서원에서의 강학 역시 비슷하게 이루어졌다. 연경서원은 원래 퇴계의 제자이면서 壘巖 李賢輔(1467~1555)의 아들인 李叔樾(1519~1592)이 지은 서원으로 임진왜란에 소실되었다. 이를 1602년 정구와 그 제자 장현광, 손처눌과 서사원 등이 주축이 되어 중건하였던 것이다.²¹⁾

이후 이곳은 대구지역의 강학 장소로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으므로 대구 교육의 핵심장소가 되었다. 통강 규약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은 한 한 달에 한 번 이상 이곳에 모여 강학을 하였던 것으

21) 연경서원에 대해서는 구분옥, 2014 「연경서원의 경영과 유현들」, 『한국학논집』57 참조.

로 추정된다. 정구 역시 이 서원의 증창에 중대한 역할을 하였기에 초하루와 보름에 열리는 강학회에 반드시 참여하지는 않아도 고문의 역할을 하였으며 자주 왕래하였다.

1613년 연경서원에서 일화는 강학에 대한 손처눌의 입장을 잘 보여 준다. 연경서원에서 손처눌이 山長이 되어 여러 생도들과 강학할 때 관찰사가 와서 정치와 관한 잡담을 하였다. 이에 손처눌은 관찰사에게 전일에 비록 『소학』을 강학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강학도 없으니 말만 하고 실천은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²²⁾

4. 교육의 내용

손처눌이 교육에 사용한 교재는 다음과 같다.

소학, 대학, 논어, 맹자, 중용, 주역, 춘추, 역학계몽, 심경, 근사록, 태극도설, 안씨가훈, 이정전서, 朱子書, 이락연원록, 주문공행장, 가례, 예설, 漢書, 심경후설, 퇴계집

이 교재들은 다양하지만 대체로 사서오경 등 성리학 관련 서적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연보>나 『모당일기』를 통해 살펴보면 이들 교재를 사용하여 강학한 기간을 알 수 있다.²³⁾

22) 『慕堂日記』上, 485쪽

23) 표는 손처눌의 연보와 『모당일기』 및 황위주, 송희준의 연구를 참조하였다. 黃渭周, 2003 「慕堂 孫處訥의 文學活動과 作品世界」, 『慕堂 孫處訥先生의 生涯와 學問』(靑

강독교재	강독한 해
대학	1601
소학	1602, 1604, 1605, 1611, 1613, 1618
논어	1607
맹자	1611, 1614, 1615, 1616, 1623
증용	1609, 1621
주역	1602(李潤雨), 1605(鄭述), 1615(鄭述), 1620
경의(經義) 또는 경학(經學)	1579(鄭光天), 1583(張顯光), 1600(孫遜)
가례(家禮)	1612(7월), 1623(4월)
근사록(近思錄)	1599, 1619
심경(心經)	1585(徐思遠), 1606, 1609(鄭述), 1610, 1612(心經後論), 1622(心經疑義), 1625, 1626년(張顯光), 1632(鄭好信)
역학계몽(易學啓蒙)	1605(徐思遠), 1606, 1608(太極圖說), 1611, 1614(太極陰陽五行), 1621, 1626, 1629(張顯光, 太極圖說)
이락연원록(伊洛淵源錄)	1604
이정전서(二程全書)	1615
주문공행장(朱文公行狀)	1604(관찰사 曹弘立)
주자서(朱子書)	1599(徐思遠), 1602, 1602(7월), 1606, 1614, 1615(鄭述), 1616, 1622(8월, 講朱書疑義), 1623(3월), 1625, 1626
성리서(性理書)	1574(鄭師哲), 1617(張顯光, 理氣四七辨)
퇴계집(退溪集)	1601, 1624

그 가운데 손처눌은 『소학』을 매우 중요시하였다. 『모당일기』를 살펴 보면 『소학』을 읽었다는 기록이 148회나 보일 정도로 여러 번에 걸쳐 『소학』을 강독하였다. 이것은 『소학』이 학문적으로나 실제 과거에 응시에서나 모두 중요한 책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곧 과거의 시험에서 『소학』은 照詔講에서 강독을 하여 평가의 소재가 되는 등 반드시 익혀야 할 교재였다.

그러나 『소학』이 중요시되었던 데는 과거에 필요해서만은 아니었다. 주지하다시피 『소학』은 『근사록』과 함께 사림들이 가장 중요한 책으로 여긴 대상이다. 조선 초기에 형식이나 제도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서의 성리학을 염두에 둘 때 『소학』의 중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는 바였다.

『소학』을 강조한 대표적인 사람이었던 김굉필이 玄風에 세거하였던 것은 대구지역에도 충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김굉필은 주지하다시피 1498년 무오사화가 일어나자, 김종직의 문도로서 봉당을 만들었다는 죄목으로 杖 80대와 遠方付處의 형을 받고 평안도 희천에서 2년 동안 유배살이를 하였다. 그는 유배지에서도 학문연구와 후진교육에 힘썼는데, 특히 조광조와의 만남은 역사적인 만남이었다. 당시 조광조는 17세로 魚川察訪(어천은 지금의 평안북도 영변)으로 부임하는 아버지를 따라왔다가, 인근에서 유배 중이던 김굉필을 찾아가 수학함으로써 학문을 전수받았다. 이후 김굉필은 순천으로 유배지가 옮겨지고 갑자사화로 인해 참형되었지만 그의 영향은 무시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어느 쪽으로나 『소학』의 중요성 때문에 손처눌은 강학에서 이를 가장 열심히 공부한 것으로 보인다.

『주역』의 경우에도 자주 독서하였던 교재이다. 『모당일기』에는 『주역』의 건괘와 곤괘를 읽었다는 등의 기록이 121회 나온다. 주역을 읽은 때는 1611년 2월, 5~6월, 건괘는 1601년 4월~7월, 11월~12월, 1602년 1월~4월, 1611년 3월, 1614년 1614년 8월, 1617년 2월이며, 곤괘는 1601년 5월, 12월, 1602년 2월, 1615년 2월이다. 이러한 독서 경향을 보면 『주역』 가운데서도 건괘와 곤괘를 많이 읽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614년의 경우 건괘에 구두점을 찍었고, 1615년 2월에는 곤괘에 구두점을 찍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매우 세밀하게 읽었음을 알 수 있다.

손처눌은 송대의 성리서를 또한 주로 강학의 교재로 삼았는데 그 중에서도 『심경』, 『근사록』, 『역학계몽』, 주자서가 많이 활용되었다. 『모당일기』에는 모두 1,244회 강학한 기록이 있는데 그 중에 주자의 글이나 성리서에 관련된 책은 835회 등장하여 대체로 2/3를 차지하였다.²⁴⁾ 이러한 사실로 보면 손처눌은 사림 일반이 추구하였던 주자성리학의 교육 내용에 동의하면서 이를 실천하고자 한 것을 알 수 있다.

이황이 「心經後論」을 지어 주목하였던 『심경』의 경우 손처눌 역시 매우 주목하여 강학의 대상으로 삼았다. 『심경』은 모두 141회 보이는데, 1605년 4월, 7~9월, 1607년 11월~12월, 1608년 3월, 5월, 10월, 1609년 11~12월, 1610년 2~3월, 1611년 12월, 1612년 1월, 1617년 2월, 1624년 7~8월에 걸쳐 매우 많은 시간을 들여서 강학을 하였다. 특히 1606년 1월에는 『심경질의』를 교정하기도 하였다.

24) 이와 관련된 통계는 黃渭周, 2003 「慕堂 孫處訥의 文學活動과 作品世界」 『慕堂 孫處訥先生의 生涯와 學問』(靑湖書院 간행) 40~41쪽 참조.

『심경』에 대한 각별한 관심은 이황의 학문적 태도와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이황은 <心經後論>에서 젊은 시절부터 이 책을 보고 공부를 하였음과 중간에 신병 때문에 공부를 중단했다가 다시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든 것이 이 책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근사록』에 비할 정도이며, 원나라 학자인 許衡이 『소학』을 존송하였던 것처럼 이 책을 대한다고 할 정도로 이 책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였다.²⁵⁾

퇴계의 학문을 기본적으로 계승한 손처눌은 『심경』을 바로 퇴계의 학문을 잇는 징검다리로 보았던 것이다. 사실 『심경』은 『소학』·『근사록』과 함께 사림들이 가장 주목하였던 책이다. 조광조는 중국에서는 그리 크게 유행하지 않았던 이 책을 좋아하여 이를 중요시하였다. 당시 조선에서 유행한 『심경』은 원래 남송의 眞德秀가 지은 책이지만, 명나라의 程敏政이 『심경』에 주를 붙여서 1492년에 만든 『心經附註』였다. 이 책은 명나라에서 주자학이 점차 陽明學으로 변화하는 과도기적 현상을 보여주는 책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조선에서는 이황에 의해 주자학을 이해하고 실천하는데에 중요한 서적으로 재평가된 것이었다.²⁶⁾

손처눌이 강학의 교재로 삼은 중에도 가장 정성을 기울여 강학한 대상은 이황이 편찬한 「朱子書(節要)」이다. 우선 강학한 시간으로도 빈도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며, 『모당일기』에 보이는 독서 횟수도 267회로 가장 많이 보인다. 강학의 기간도 1601년 7월, 1602년 4월, 7월, 1602년 9~12월, 1604년 4~6월, 11~12월, 1618년 1~12월에 「주자서」를 읽

25) 『퇴계집(退溪集)』 권41, <心經後論>

26) 정재훈, 2002, 「16세기 전반 새로운 性理學의 모색과 心學化」 『韓國思想史學』 18, 358쪽.

었으며, 1609년 2~4월, 1612년 8월, 1613년 2월, 5~6월, 1615년 4월에는 「주자서」를 교정하였다. 1609년 3월에는 『朱子大全』을 강하기도 하였다.

손처눌은 이렇게 이황의 안내를 따라 주자를 읽었는데, 이황의 문집인 『退溪集』도 강학의 주요대상이 되었다. 손처눌은 스승인 전경창과 정구 모두 이황의 제자이었기에 당연히 이황에 대한 존경이 남달랐을 것으로 볼 수 있다. 1600년에 『퇴계집』이 새로 간행되자 손처눌은 다음해인 1601년 5월에 이 책을 강학의 교재로 삼았다. 그는 이황을 東方 朱子로 일컬으면서 매우 『퇴계집』을 높였다. 그는 “『퇴계집』은 『주자대전』과 매우 비슷하여 그 시를 외우고 그 편지를 읽으니, 마치 주주가 다시 태어난 것 같다.”고 하거나 1624년 7월에 『퇴계집』을 강학하면서 “학자는 마땅히 『퇴계집』을 주자서와 참고하여 본 후에야 두 책이 서로 표리가 되는 취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기도 하였다. 『모당일기』에 따르면 『퇴계집』을 읽은 기간은 1607년 2월과 4월~9월, 1624년 12월이며, 독서한 회수는 70회이다.

이외에도 강학하였던 교재로 삼지는 않았지만, 『모당일기』에는 여러 우리나라 선현의 문집을 읽은 기록이 보인다. 예를 들어 1624년 3월에 『圃隱集』, 1604년 1월에 「元朝五箴」, 1611년 6월에 「晦齋年譜」 등이 그것이다.

5. 맺음말

이상에서 『모당일기』를 중심으로 모당 손처눌의 교육활동에 대해 살펴보았다. 손처눌은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초반에 걸쳐서 대구 지역에서 활동하였던 대표적인 학자였다. 그가 가장 힘을 기울였던 교육활동을 통해 당시에 사림 내지 사족들이 당해 지역사회의 현장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였는지, 이를 통해 무엇을 추구하였는지, 궁극적으로 사족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형성해 나갔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다.

손처눌이 본격적으로 강학활동을 통해 교육에 나선 것은 48세 때인 선조 33년(1600)이었으며, 이해부터 일기도 작성하였다. 손처눌은 종래 공적인 교육체계였던 향교를 대신하여 선사재나 연경서원 등의 사학에서 새로운 교육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강학의 규정이나 절목을 마련하기도 하였는데, 주자나 이이의 것을 모범으로 삼았다.

모여서 서로 격려하며 공부하는 것은 이 시기에 새롭게 등장하였던 방식으로, 사림들이 추구하였던 위기지학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었다. 사림 내지 사족들은 이러한 강학활동을 통해 자신을 연마하면서 종래와는 다른 사족 중심의 질서 내지 국가질서의 구축까지 추구하였다.

손처눌은 멀리는 조광조와 김굉필로부터 내려온 학문적 영향을 받으며, 이황의 학문을 정구를 통해 전해 받았다. 그래서 『소학』이나 『심경』, 『근사록』 등과 같은 교재를 강학에서 가장 중시하였다. 일기에서 가장 시간을 많이 들여 읽은 책들이 위의 교재였던 것에서 손처눌의 학문적 지향을 알 수 있다.

임진왜란이라는 일찍이 겪어보지 못했던 전란을 경험한 이후 손처눌

은 새로운 사회 재건의 목표를 교육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임진왜란 이전부터 이미 조선을 혁신하려고 시도하였던 사림들의 학문적 지향을 계승하면서도 이를 지역의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대구 지역에서는 이전과는 달리 많은 과거 합격자를 배출할 수도 있었고, 학문의 전통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Abstract

Son Cheo-nul(孫處訥)'s Educational Activities,
Examined from the *Modang Journals*(慕堂日記)

Jung, Hae-Hoon

Son Cheo-nul was a renowned scholar in the Daegu area, who was active in the latter half of the 16th century through the early 17th. He was under the influence of teachings from Jo Gwang-jo and Kim Gweng-pil, and learned the teachings of Yi Hwang from one of his masters, Jeong Gu. He considered *Sohak*, *Shimgyeong* and *Geunsa-rok* as the most important texts in Confucian education. According to his journals, they were the texts that he invested most of his time studying, so we can see the amount of importance he placed upon these classic texts of Confucian teaching.

After experiencing tragedies from the Japanese invasion, he wanted to heal the society through education. Such aspiration was an extension of certain desires which had already appeared before the war and had come from people who wanted to renovate the Joseon society, but he also wanted to come up with realistic options that could be pursued in real life. Thanks to his efforts, more people from the Daegu area successfully applied for the national competitive examination, and an academic tradition also started to form.

Key Word

Son Cheo-nu, Yi Hwang, Jeong Gu, *Modang journals*, *Sohak*, *Shimgyeong*, *Geunsa-rok*

▪ 논문투고일 : 2015.7.16 심사완료일 : 2015.8.11 게재결정일 : 2015.8.14